1번 ③

- ① 과거에 생산된 재고 제품이 올해 판매되는 경우 재고투자가 감소하고 그만큼 다른 항목이 증가하여(ex) 해외로 판매된 경우 수출) 국민소득은 불변이다.
- ② 당해 새롭게 생산된 최종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중간재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 중간재 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포함된다.
- ④ GDP는 국민이 아닌 국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국내 생산이면 외국인이 했더라도 포함된다.

2번 ①

- ① 메뉴비용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발생한다.
- ② 구두창비용은 보유한 화폐의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현금 보유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므로 화폐보유량이 적을수록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두창비용도 증가한다.
- ③ 고전학파의 이분법에 의하면 실질변수와 명목변수는 분리되어 있고, 명목변수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
- ④ 채권채무는 일정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구매력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.

3번 ①

- ①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작은 경우 이윤은 음(-)이다.
- ② 이윤극대화 1계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.
- ③ 비용극소화 1계조건은 한계기술대체율과 요소상대가격이 같아지는 것이다.
- ④ 장기평균비용곡선은 단기평균비용곡선을 아래에서 감싸는 포락선의 형태를 띠므로 단기평균비용곡선이 항상 위쪽에 위치한다.

4번 ②

$$\Delta k = sy - (n + \delta)k = sAk - (n + \delta)k$$

$$\frac{\Delta k}{k} = sA - (n + \delta)$$

$$\frac{\Delta y}{y} = \frac{\Delta A}{A} + \frac{\Delta k}{k} = \frac{\Delta k}{k}$$

$s = 0.6, n = 0, \delta = 0.08$
 자본의 순한계생산 = $MPk - \delta = A - \delta = 0.12 \rightarrow A = 0.2$
 $\therefore \frac{\Delta y}{y} = 0.04$

5번 ③

$$M = C + D$$

$$H = C + Z$$

$$\frac{C}{M} = 0.2, \frac{Z}{D} = 0.15 + 0.1 = 0.25$$

$$\frac{Z}{M} = \frac{Z}{D} \times \frac{D}{M} = \frac{Z}{D} \times (1 - \frac{C}{M})$$

$$\frac{H}{M} = \frac{C}{M} + \frac{Z}{D} \times (1 - \frac{C}{M}) = 0.2 + 0.25 \times 0.8 = 0.4$$

$\therefore M$ 을 25조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H 를 $25 \times 0.4 = 10$ 조 증가시켜야 한다.

6번 ④

- ①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은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신규 진입을 저지시킬 수 있다.
- ②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. 이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적어 손실을 본다.
- ③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려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야 한다.
- ④ 경제적 총잉여보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과이다.

7번 ②

- 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.
- ② 지니계수는 구체적인 소득분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. 따라서 상위 20% 소득에서 하위 20% 소득을 나눈 값인 5 분위 배율이 다를 수 있다.
- ③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.
- ④ 지니계수가 같아도 로렌츠곡선이 다를 수 있다.

8번 ①

$$2\text{년 만기 이자율} : 2\% = \frac{1+x(\text{1년 후 시점 1년 만기 이자율 예상})}{2} + 0(\text{2년차 유동성프리미엄})$$

$$x = 3$$

$$3\text{년 만기 이자율} : 4\% = \frac{1+x+y(\text{2년 후 시점 1년 만기 이자율 예상})}{3} + 2(\text{3년차 유동성프리미엄})$$

$$y = 2$$

$$\therefore 2\%$$

9번 ③

- ① 생산량의 증가는 저축의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하락시킨다.
- ② 조세의 증가는 저축의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하락시킨다.
- ③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통해 투자량을 감소시킨다.
- ④ 투자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통해 저축량을 증가시킨다.

10번 ②

$$\text{총생산증가율} = \text{기술진보율} + \text{자본소득분배율} \times \text{자본증가율} + \text{노동소득분배율} \times \text{노동증가율}$$

$$6 = x + 0.4 \times 5 + 0.6 \times 4$$

$$x = 1.6$$

11번 ④

- ① 고정환율제도에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할 수 없다.
- ②③ 변동환율제도는 트릴레마와 무관하다. 다만,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려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해야 한다.
- ④ 고정환율제도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위해서는 자본이동을 통제해야 한다.

12번 ②

- 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유인 제공이다.
- ② 대리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 계약 이후 가입자가 사고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.
- ④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여 발생한다.

13번 ①

- ①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. 가격하한제의 경우 반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.
- ②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려면 초과공급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그만큼 구매해야 한다.
- ③ 가격상한제의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재화 배분이 필요하다.
- ④ 어떤 방식이든 규제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.

14번 ③

- ① 총공급 감소는 물가 상승, 소득 감소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.
- 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금리를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시켜 실질금리를 상승시킨다.
- ③ 자기교정적 메카니즘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인플레이션을, 실질소득 모두 초기 수준으로 회귀한다.
- ④ 총공급 감소의 경우 고용 안정을 선택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.

15번 ②

- ① 총수요를 증가시킨다.
- ② 목표인플레이션을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수한다는 것이므로 확장적 정책을 의미한다.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한다.
- ③ 총수요곡선은 인플레이션율-실질소득 평면에서 우하향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총수요는 증가한다.
- ④ 금융마찰로 인해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면 총수요곡선도 좌측이동한다.

16번 ④

인플레이션율을 1%p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인플레이션율에서 과거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 1%p 감소해야 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에서 실업률이 2%p 상승해야 한다. 따라서 희생률은 $2/1=2$ 이다.

17번 ①

$C=0.6(Y-T)=54$, $G=10$ 이므로 투자는 $I=Y-C-G=36$ 이다.

한편, 주어진 생산함수의 경우 자본소득이 0.3, 노동소득이 0.7의 비중을 가지게 된다.

따라서 자본소득은 $100 \times 0.3=30$ 이다.

18번 ①

- ① 명목금리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지가 중요하다.
- ② 테일러 준칙은 대표적인 준칙에 기반한 정책이다.
- ③ 인플레이션율이 1%p 상승하면 명목금리는 1.5%p 상승한다.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므로 0.5%p 상승한다.
- ④ 중립 상태라면 인플레이션 갭, GDP 갭 모두 0이므로 명목금리는 $\pi+2$ 이다.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므로 2%이다.

19번 ④

- ① 기펜재라면 증가할 수도 있다.
- ② 대체효과는 노트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소득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하다.
- ③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소득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결과인데, 한 재화가 열등재라면 오히려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.
- ④ 두 재화의 소비가 모두 감소하면 소득은 늘어나는데 지출액은 감소하여 소득을 남기게 되어 모순이다. 따라서 반드시 적어도 한 재화의 소비는 증가해야 한다.

20번 ③

- ①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순수출의 감소로 인해 상쇄되어 효과가 없다.
- ②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환율 하락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외환 매입, 자국 화폐 매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더욱 효과가 크다.
- ③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순수출 증가로 효과가 더욱 크다.
- ④ 고정환율제도에서 평가절하는 순수출을 증가시킨다.

21번 ③

$$\text{균제 상태 : } \Delta k = sy - (n + \delta)k = 0$$

$$0.4k^{\frac{1}{2}} - (0.15 + 0.05)k = 0$$

$$k = 4$$

$$\text{황금률 : } MPk - \delta = n$$

$$0.5k^{-\frac{1}{2}} - 0.15 = 0.05$$

$$k = 6.25$$

이를 위해서는 $s = 50\%$ 의 저축률이 필요하다.

- ① 맞는 선택지이다.
- ② 황금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인당 소비는 황금률 상태보다 적다.
- ③ 황금률 상태보다 자본축적이 낮다.
- ④ $k=4$ 이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은 $MPk=0.25$ 이다.

22번 ②

소비에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$SMB < PMB$ 이다. 시장균형은 $PMB = PMC$ 일 때,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는 $SMB = SMC$ 일 때 달성되므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소비자 지불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고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균형생산량보다 많다.(바람직한 상태보다 덜 내고 더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)

23번 ④

$$\text{한계대체율} = \frac{\frac{1}{C_1}}{\frac{1}{(1+\rho)C_2}} = \frac{(1+\rho)C_2}{C_1}$$

$$\text{상대가격} = \frac{1}{\frac{1}{1+r}} = 1+r$$

$$\text{효용극대화 조건 : } \frac{(1+\rho)C_2}{C_1} = 1+r \rightarrow C_2 = \frac{1+r}{1+\rho} C_1$$

$$\text{이를 예산제약에 대입하면 } C_1 + \frac{1}{1+\rho} C_1 = Y_1 + \frac{Y_2}{1+r}$$

$$C_1 = \frac{1+\rho}{2+\rho} (Y_1 + \frac{Y_2}{1+r}), C_2 = \frac{1+r}{2+\rho} (Y_1 + \frac{Y_2}{1+r})$$

- ① 시간선호율이 이자율보다 크면 현재소비가 미래소비보다 크다.
- ② 시간선호율이 클수록 미래소비가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.
- ③ 시장이자율이 높을수록 효용극대화하는 미래소비증가율이 높다.
- ④ 시간선호율이 높을수록 한계대체율은 높다.

24번 ④

- ① 주어진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다.
- ② 1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하는데 지금 망고는 20, 쌀은 10이므로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는다.
- ③④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쌀 소비를 줄이고 망고 소비를 늘리면 효용이 증가한다.

25번

- ① 불완전정보모형에서 기업의 예상착오가 클수록 총공급곡선이 완만하다. 따라서 확장적 정책에 의한 생산량 증가가 크다.
- ② 반대로 예상착오가 없는 경우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고, 이때 확장적 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킨다.
- ③ 경직적 가격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인 기업이 많을수록 총공급곡선이 완만하다. 따라서 신축적인 기업이 많을수록 총공급곡선이 가파르므로 확장적 정책에 의한 물가 상승이 커진다.
- ④ 모든 기업이 경직적인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되고, 확장적 정책의 생산량 증가가 크다.